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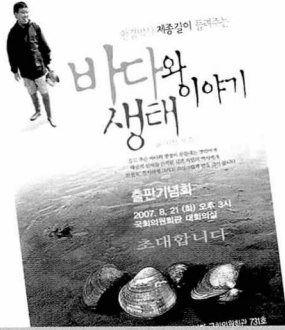
## 국회 제종길 의원 출판기념회 “성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제종길 의원의 출판기념회가 많은 사람의 관심 속에 성황리에 치러졌다.

지난달 21일(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바다와 환경 그리고 제종길 의원을 사랑하는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종길 의원이 집필한 '바다와 생태 이야기' 출판기념회가 개최됐다. 또한 이날 부대행사로 그동안 제종길 의원이 소장하던 포스터를 「세계의 포스터 '자연과 바다'」라는 주제로 전시회도 병행했다.

이 행사에는 천정배 의원, 문국현 자연환경국민신탁 이사장, Warwick Morris 주한영국대사, 정명기 안산의제 21 공동대표, 고철환 전 지속가능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출판은 제 의원이 해양연구원 박사 시절부터 20년 넘게 각종 언론과 학술지에 기고한 원고를 집대성한 것으로, 바다와 환경에 관련된 60개의 글과 300여개 사



▲ 제종길 의원 출판물



▲ 출판기념회 포스터 전시회

진이 수록된 550쪽 분량의 방대한 서적이다.

이 책은 바다와 생태계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와 성찰이 담겨져 있고 시화호, 안산 환경도시, 바다이야기, 기후변화, 그린국회, 새만금, 등 다양한 분야가 총망라되어 있으며 태평양 9개국의 생태여행이 소개되어 있어 환경교양서적으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이 책자는 '전문가 국회의원'의 박람회(博覽強記)가 엮보이는 책이며, 국회의원으로서 방대한 분량의 환경 전문서적을 출판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종길 의원은 서울대 해양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양연구원(책임연구원)에서 연구를 하였고, 시화호 및 새만금 문제에 깊숙이 관여하였다. 17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환경노동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회바다포럼과 기후변화포럼의 대표를 맡는 등 바다와 환경 분야의 손꼽히는 전문가 국회의원이다. 더불어 국회 본회의 100% 출석과 법안처리 90% 참여 등 100-90클럽 회원이고 3년 연속 국감우수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의정대상과 환경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K)